

이오플로우,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 유럽 수출 시작

- ▶ 2021 유럽당뇨병학회(EASD)에서 제품 런칭 및 본격적 홍보 시작
- ▶ 메나리니, 'Glucomen Day PUMP'로 출시 예정...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

[2021-09-30] 이오플로우가 이오패치의 유럽 출하를 시작한다.

웨어러블 약물전달 솔루션 전문기업 이오플로우(294090, 김재진 대표이사)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의 초도 유럽 수출 선적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5월 유럽 CE인증 획득 이후 3분기 내 유럽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얘기해 왔는데 그 계획대로 첫 수출이 이뤄진 것이다.

이오패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 솔루션이다. 기존 인슐린 펌프가 긴 주입선으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제약이 많은 문제점을 해결했다. 실제로, 이오패치는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최대 3.5일(84시간)까지 인슐린 주입이 가능하다.

앞서 이오플로우는 2019년 세계 50대 제약사인 메나리니와 5년간 1,500억 원 규모의 이오패치 유럽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오플로우가 공급하는 이오패치는 메나리니의 'Glucomen Day PUMP'로 유럽 전역에 판매될 예정이다. 메나리니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는 EASD(유럽당뇨병학회)에서 제품 런칭 및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하였다.

회사 관계자는 "4분기 내 유럽 주요 국가 출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유럽 17개국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유럽 국가를 시작으로 중국, 중동 등 기타지역 공략도 확대해 나가며 이오패치의 뛰어난 성능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국내 최초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개발에 성공한 이후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이오플로우가 유럽에 첫 발을 내딛은 뜻깊은 순간"이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인슐린 펌프에 이은 신제품들을 선보이고,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미래 시장을 선점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 1] 메나리니의 EASD(유럽당뇨병학회) 버추얼 부스

GlucoMen[®] Day PUMP

smart insulin patch pump

CE MARKED

3.5 days insulin delivery

App controlled

Waterproof (IPX8)

Wearable, Smart & Light

Tubeless

A.MENARINI diagnostics
Living your life



www.menarinidiagnostics.com



[사진 2] 메나리니, 'GlucoMen Day PUMP' 브로슈어

▣ 자료문의

이오플로우 PR 담당 031-724-0231 / ir.pr@eoflow.com